

철천인은 성경을 알아야 (딤후 3:14-17)

오늘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일 같은 거 가득 세워놓고 그건 아니지요. 호박 갖다 놓고 요즘에 샤인머스켓 갖다놓고... 아닙니다. 감사, 한 해 주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천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철천인 있다. 있는데 불일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어요. 요즘 계속 얘기하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시대라도 시간을 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친다 그러면 안 보낸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아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선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간간다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고 시간간다면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모처럼 나면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인생을 말이에요. 어리석음에 다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냐는 해대를 좋아한다. 상상을 좋아한다. 응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야구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월드컵 때 나와서 대중 일으키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 서울역 광장에 빨간옷 입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축구가 아니다. 나중에 훈련시키는 거다. 저 북한에서 남한 통일시키려고 할 때 모여들어야 하거든. 훈련이 되어야 하니까. 정말 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 괜찮은 게 아니다. 곧 다가올 위기가 있어요. 아이고 코로나 와서 고생했다. 이제 쉬자.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요. 맨날 어리석음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전도자로 사셔야 해요.

- 지혜자.
 - 전도자.
- 여러분은 자세는 전도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 사랑.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김동권 목사가님이 주례 할 때마다 하시는 얘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면 안돼요. 세상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면 안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도와줘야 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사셔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속에서 솔로몬이 7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가 뭐냐? 1장13절이다. 전1:13에 뭐라고 했냐? 도대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죽어버리면 다 끝나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다가 아니까요. 3:1 보니까 천하만사 그랬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만가지 일을 행하고 있다.

- 질문.
- 1) 1:13
아이들이 만 가지 일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 뭐 하고 있지? 우리 장로님은 어떤 일 하시지? 권사님은 어떤 직업 갖고 계시지? 그걸 만 개를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나? 두 번째 질문이다.
- 2) 2:1-3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직업 찾을 때 괴로운 일 하면 안되잖아요. 즐거운 일, 나는 노래하는 게 즐거워. 노래 하는 게 너무 싫은데 주변에서 노래해라 하면 안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할 일이 뭐냐? 내가 일 하면서 기뻐하면 안되잖아요. 고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답이 안돼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이 뭐냐? 이 질문 속에서 사실은 직업이 나와야 돼 그런데 잘못 됐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하고 싶냐 하면 대통령 된대. 요즘엔 연예인 된대. 그게 뭐 안 하고 있다는건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만가지 일에 대해 연구 안 하는 거다. 사실은 아이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슬픈거다. 아이들이 와서 물어본다. 뭐 하고 싶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 얼마나 슬픈 겁니다? 내가 20살이 다 되었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 엄마가 다 해주겠지 이런 식이다.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되겠냐. 한번 질문해보라. 나는 뭘 좋아하냐, 이 시험을 했다. 솔로몬이. 그러다가

3) 3:1 문제
내가 이 질문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계속 되냐? 언제는 슬펐다. 좋았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평화했다가 전쟁했다가. 인생이 문제해

결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필요하냐?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예요. 문제 해결되면 가버려. 안 와. 어떤 친구가 시달려서 교회 와서 만났다. 복음 받고 영접했는데 안 와. 세상이 재있어. 자 문제는 계속된다. 인간의 본분을 찾지 못하면 그래요. 정말 전도서1:2에 여러분 하는 일에 답이 있습니까?

4) 1:2 답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를 속인다. 내가 안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속여요. 나쁜 거예요. 자신에게 거짓말만 하고 살아요. 답 없잖아요. 솔로몬이 평생 정치하고 답 없다고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뭐 답 있어요? 아니다. 답도 안되니까 돈이나 벌어서. 사업도 엄청 성공했다 솔로몬이 그랬다. 인생이 괴롭다. 돈 벌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하면서 인생 살면 안돼요. 나를 속이면 안돼요. 평생을 내 자신을 속여왔어요. 질문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예요. 내 책임. 분명히 그랬다. 너 청년의 때에 너 마음대로 해라.

5) 11:9 책임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책임을 물겠다는 거다. 부모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런데 다 남탓 한다. 요즘 플랭카드 안 걸면 좋겠다. 파란글씨로 나쁜놈들, 빨간글씨로 나쁜놈들 그런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적어도 내 책임입니다.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 북한이 성공했어요 지금. 북한은 지금, 아주 지하에서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6) 12:1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 답이 있냐? 없지. 질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를 왜 지었냐? 여러분이 여러분 장기를 간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지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왜 나를 만들었냐? 이래야지 바른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12:13에 나온다. 인간이 본분이 나온다. 인간이 뭐 하는 존재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다.

7) 인간은 무엇인가?

1. 본분

세 가지가 나온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는 뭘니까? 산한 일이 뭘니까?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랬다. 썩은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아버지의 일을 해라. 아버지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본분이다. 말하자면 이걸 잘 이해해야 한다.

교역자가 알아야 한다. 교역자는 영적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무당보다 잘 알아야 돼. 문선명 보다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교회가 귀신이 있냐 이런데. 한국교회가 다락방을 정지한게 귀신 얘기 하지 말라는 거다. 지금 귀신판이 되었는데 귀신얘기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교역자는 영적인 세계에 전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교역자에게는 현장 안 주셨다. 레위 땅은 없었어요. 레위에게 현장이 없어. 목사는 현장이 없는 거다. 그 현장에 영적인 세계가 현장이예요. 목사는.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해야돼. 목사는 24 해야 돼. 안 타까워요. 목사는 기도를 못 해. 조금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당장 목사님이 신학교 가. 그런데. 이래서 연구원 간다고 하자. 이러면 숙제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연구원2학년 되면 전도사 해야 돼요. 연구원 3학년 되면 논문 써야 돼요. 졸업하면 다음 해에 목사고시 봐야 돼요. 이래가지고 안수 받는다. 전혀 말씀을 모르다. 신학교에서 창세기 가 뭐다 이런 거 안 가르친다. 창세기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잘못되었나 그런 거 가르친다. 왜냐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학문은 진화론이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졸업했는데 사실 교역자, 목사 역할 하겠냐? 말씀 모르지, 기도 모르지.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아니 하나님 하고 통해야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살아. 생존이야 목회도. 이걸 잘 이해 하셔야 한다. 앞으로 교역자들을, 철천인들을 준비해야 한다. 뭐 해야 되냐? 창세기를 잘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니까?

1) 창세기
창12:1-3에 인간이 뭐냐? 복의 근원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주주의 근원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별짓 다 한다. 인본주의 쓰고, 내 패 나 누고.

2)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 본분이다.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 설명한다. 교역자들은 이 비밀 있어야 한다. 눈 감고 영적세계 들어가야 한다. 왜 우리가 목상합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3) 사복음서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일 하는 거다.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설명하셨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어왔다.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요한복음 5:17 아버지께서

일 하시는 것을 본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정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2. 중직자 - 세상이해

중직자들은 세상 아셔야 한다. 문학서 5권 가지고 세상을 이해 하셔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도 이치가 있다. 세상의 도리가 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42:3에 욥이 늘 세상 이치를 헤아렸다. 이걸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1) 세상이치 (흐름) - 욥42:3

세상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본 사람이 욥1:3에 거부 었더니깐요. 욥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그리고 욥이 존경을 받았다고요. 욥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에게는 진짜 진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욥이 어려움 당한다는 거 알고 아무말도 안 하고 같이 고통을 받았다. 내게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없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으면 친구가 생겨요. 봤더니 야구선수들 엄청나게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빠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친구들 많습디다. 뭐든지 이치를 깨달으면 친구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노래도 잘 해보세요. 친구가 많아요. 팬클럽 생기고 그런다. 세상에 이치를 깨달지 않으니깐 돈도 없고, 무시 당하고, 친구가 없어요. 간단한건데. 이걸 발견하셔야 한다. 앞으로 흐름을 막 보시고.

2) 지혜

세상의 이치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하나? 말하자면 솔로몬의 지혜서들을 잘 아셔야 한다. 잠언이다. 지혜의 글들을 모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냐면 황금덩어리예요. 지혜는 황금이 다 잠언서에 나온다. 그리고 지혜는 지름길이다. 지혜는 뭐라고 했나? 창조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혜 모르는 일을 안 해. 어리석음에 빠져있어. 유투브 하지. 게임하지, 네 플릭스 보지. 친구 만나서 맨날 쓸데없는 일 하지. 이게 중요하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세요. 세상을 연구하세요. 아니 호기심이 없습니까? 이 지구를 보고. 다 망하는데. 그걸 보고 석가가 이런 아니다 한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 속에 망해야 하나? 찾아야 한다 답을. 그래서 석가모니가 존경 받는거다. 말하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까짓것 망하면 망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한국만 전쟁 안 터지면 돼.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도 위험해요 지금. 지금 북한이 한국을 잠악했어. 지금 경성도 전라도 싸움 아니다. 북한과의 싸움이다. 북한의 김일성대학에서 수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남한 공산화 하는지 연구한다. 북한은 적이에요 적. 우리가 세상을 잘 연구하셔야 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한데... 아니예요. 어느날 갑자기 때가 오는 거예요.

*잠언-지혜의 글.

*전도서-연구.

지도자들이 전쟁을 함부로 하지 않아. 궁지에 몰리다 몰리면 한다. 북한이 나쁜놈인데 나쁜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궁지에 몰리면 전쟁한다. 깨닫게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 지혜가 없는데 맨날 뭐 먹을까 그런다. 대충 먹으면 돼지. 배 안고프면 안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이 연구를 하셔야 한다.

*아가서-사랑.

여러분 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거다. 왕이 돼서 나 하나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왕이 정말 한자를 보니 백성들 교육하기가 어려워. 이래서 이 사람이 백성이 교육을 받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야 된다. 존경 받잖아요 세종대왕.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나 그 고민을 하셔야 한다. 맨날 빼져있어. 나를 존중 안 해서 빼져있어. 지혜입니다. 사랑은 지혜예요. 중직자들은 자나깨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네.

3) 창조

그리고 창조하셔야 한다. 창작이다. 그게 시편이다. 시편이 많은 작품들이다. 창작하시려면 뭐 하셔야 하나? 묵상하셔야 한다. 시1편에. 지금 여러분 미국에 세도나에 1년 2년 명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시대를 움직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명상이라는 게 뭔가? 모든지 멈추는거다. 그리고 기다리는거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지혜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지혜는 묵상이다. 시23편에 뭐라고 했나?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인간은 모든 부족 없애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한다.

(1) 시1:1 묵상

(2) 시23 부족.

(3) 시150편.

찬양하세요. 찬양이 무슨 창작입니까? 불신자들이 음악 듣다가 굉장한 걸 찾아낸다. 찬송의 힘은 엄청나다. 성소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 일어나나? 창작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는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애들이 구글에다 물어봐요. 구글에다 하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느냐. 시는 그런 못해요. 시는 많은 직업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이 시가 못

하는 건 뭘니까? 창작을 못해요. 불신자도 그래요. 명상의 시대가 온다. 제 4차 산업시대는 명상의 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지 이른다. 왜냐면 날 시키는 거 할 사람은 창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 움직이는 브레인들은 창작 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때 하나님의 창작의 능력을 주신다.

3. 렘넌트

우리 교회가 칠천원들 도와야 한다고 기도한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 교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휴학해라 했다. 왜냐면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셋째 하늘에 들어가봐요 할 거 아니예요. 우리가 레위지파가 영적인 세계를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삼년을 들어갔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신학을 한 사람이다. 바울이 신학이 모자라서 예루살렘교회로 가야 하나? 아니예요. 차분하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스도-도라는 눈으로 성경을 재해석 하는 시간.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로 들어갔다. 중들은 1년에 3개월, 3개월 기도해요. 교역자들은 기도 안 해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이 사람이 목사되면 어떻게 되겠나? 교역자들은 답 내야 한다. 안 그러면 복음을 막는다니깐요.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뭘 제일 많이 듣는 줄 아냐? 목사새끼들 이른다. 감정이 꼭 차 있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중직자들은 세상을 연구해야 돼요. 교역자들은 영의 세계를 연구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세상 연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지혜를 모으라. 연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세요. 지구를 사랑하세요. 그게 다름니다. 그리고 창작 속으로 들어가세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돈 벌어요. 남이 다 한 거 늦게 해서 무슨 돈을 벌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서 굉장히 중요하네. 마1:17.

1) 지시할 땅

렘넌트들은 지시할 땅으로 보내야 한다. 기도하셔야 한다.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237나라 한 번씩은 갔다올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체크해야 된다. 애들 노트에 237나라 체크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한다. 이거 안 하고서는 무슨 237도시를 찾습니까? 아이들이 237나라는 다 빠짐없이 다녀오도록. 5000종족은 못 가더라도 237은 가봐야 한다. 왜냐면 지시할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 가서 메시아 기다렸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거다. 그 중언이라. 재림주의 종인!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돼요.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2) 왕

왕을 세우든지 되든지 돕든지. 기도하셔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잘못하면 북한한테 먹힌다. 지금 북한이 보통 아닙니다. 남한을 잠악했어. 그러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이 깨달도록 기도해라. 전쟁 일어나면 안되지 않냐. 북한 저게 미쳤다. 백성들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잘 되면 되는거야 그 나라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위대한 모택동주석만 행복하면 돼요. 그걸 반대하는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죽창으로 다 찢러 죽였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3) 강대국

강대국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모르드개가 깨달았다. 강대국 안에 에스더, 다니엘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았다. 하나님은 로마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입니다.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다. 요셉이 깨달았다. 우린 그런다. 내가 말도 안하는데 미국을 복음화 하고 세계를 복음화 해.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전세계 237나라로 보내야 한다. 아이들을 237로 다 보내시라. 산티아고 보내고. 애들이 자기들 돈으로 가면 안돼. 중직자들이 돈 대줘야 해. 저 프랑스 떼제 가서 우상에 찌든 현장을 봐야 한다. 어떻게 아이들이 천주교 현장을 보나? 떼제는 다행히 기독교 공동체라 볼 수 있는거다. 산티아고 걸러라. 보라. 맨날 학교, 집, 교회 그것만 보지 말고 세계를 걸러라. 이 발판을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실력있는 아이들은 강대국으로 보내세요. 학비도 다 대주세요. 진짜 이 아이가 잘생겼거든 무조건 미국으로, 진짜 실력 있으면 미국으로. 모르드개처럼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주신거다. 교역자들은 영적인 세계 중직자들은 세상을 연구, 우리 렘넌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안예수교광로의 직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	